

# 한 국 사 회 학 회 소 식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 〈차 례〉

- I.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인사말
- II.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공고
- III. 한국사회학회 주관 학술심포지엄 안내
- IV. 한국사회학회 학술세미나<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성료 보고
- V. 유관 사회학회 학술세미나 보고
- VI. 미국사회학대회 참가기
- VII. 출판활동
- VIII. 회원동정
- IX. 언론보도
- X.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행일 : 2017년 11월 1일  
전화 : 02-722-8747  
팩스 : 02-722-8746  
홈페이지 : <http://www.ksa21.or.kr>  
이메일 : [ksa8747@hanmail.net](mailto:ksa8747@hanmail.net)  
발행인 : 박명규  
편집인 : 송유진  
사무국장 : 신아름

## I.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인사말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우리 한국사회학회가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해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6월 1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로 가졌습니다. 1부의 학술행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통합과 사회문제를 진단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곧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사회와 대학'이라는 주제로 특별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 좌담은 박명규 회장님이 좌장을 맡으셨으며, 원래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기꺼이 참여해주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 홍덕률 대구대 총장님이 좌담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인 속칭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한국사회학회는 두 번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주최하였습니다. 6월 8일의 첫 세미나는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의의와 인식을 증점적으로 다루었으며 9월 20일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뒤의 사회에 미친 효과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1,200여명 규모의 종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 법이나 정책 시행 이전에는 그 법이나 정책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른 건지에 대한 규범적인 논쟁이 매우 열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정작 법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그러한 법이나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한국의 현실에서 매우 뜻깊은 세미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에는 '서울의 미래세대'라는 주제로 '서울의 미래세대는 누구인가?', '서울의 미래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서울 미래세대의 꿈'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발표와 논의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의 다채로운 아픔과 갈망, 모순, 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12월 14일에서 16일, 3일간은 2017년 정기 사회학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 해에 두 번 열렸던 사회학대회가 한 번 개최로 바뀌면서 처음 갖는 대회입니다. 그 만큼 밀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을 논의할 때 단어의 선정이나 구체적인 실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회와 학문이 모두 근본적인 변혁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인류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학문의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 여러 학문들의 공동의 언어인 사회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사회학회 회원분들의 연구와 교육이 큰 변혁 후에 있을 사회학의 위치 재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며 이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염유식

## II.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공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들께서 기다리시는 [2017한국사회학대회]가 오는 12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향후 상세한 안내문과 초청장을 전송해 드리기에 앞서 논문발표 신청과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전체 일정은 발표주제가 접수된 후 총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오니, 발표 희망 연구자들께서는 아래 명기된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분들께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시된 세션 이외의 기타 주제나 별도의 세션 구성에 대해서는 2017사회학대회 조직을 맡은 한도현 부회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2017한국사회학대회 일정, 장소, 신청>

- 일정: 2017년 12월 14일~16일   장소: 서울대학교
- 발표 신청 마감: 2017년 10월 27일
- 원고 제출 마감(요약문, 논문원문 모두 해당): 11월 24일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분들께서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발표 희망시간, 발표 보조물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학회 사무국(ksa8747@hanmail.net)과 조직위원장(한도현 부회장, ecclehan@aks.ac.kr)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규모가 크고 2박 3일로 치르게 됨에 따라 희망발표일이 모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을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분들은 발표 신청자분들께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연구용역 과제 발표회나 BK, SSK, HK, 개인 자유발표 등의 발표회 등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세션을 구성하실 수 있으니 특별세션 조직 책임자에게 연락주시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논문발표자는 2017년도 사회학회 회비를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  
회비납부 계좌: 우리은행 142-163640-01-10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2. 발표 논문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요약문은 필히 제출해야 한다.
  - 1) 홈페이지 업로드용(PDF파일 제작): 『한국사회학』 기고 요령에 따른 A4 10-15매 내외의 분량
  - 2) 대회자료집 수록용: 발표요약문 A4 2매 이내 분량

또한 지방에서 오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숙박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숙박신청관련 안내문을 참고해주시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2017 한국사회학대회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박명규 올림

# 1. 2017년 정기사회학대회 개요

## <프로그램 개요>

<b>12월 14일 (목)</b>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일반 세션/ 대학원 세션
12:00 ~ 13:30	점심 식사
13:30 ~ 15:30	일반 세션/ 특별세션
15:30~16:00	휴식
16:00 ~ 18:00	일반 세션
<b>12월 15일 (금)</b>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일반 세션/ 대학원 세션
12:00 ~ 13:30	점심 식사
13:30 ~ 15:30	일반 세션/ 특별 세션
15:30~16:00	휴식
16:00 ~ 18:00	일반 세션
18:00 ~ 19:30	총회/만찬
<b>12월 16일 (토)</b>	
09:30 ~ 12:00	일반 세션/ 대학원 세션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5:30	전체회의

## 2.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

아래 분과 및 주제별로 구분하고, 발표 신청은 각 주제별 세션 조직책임자에게 한다.

### I 분과(일반 세션)

이론	김봉석(성균관대)	livemodern@skku.edu
문화	김성은(서울대)	cocozza@hanmail.net
사회사	강진연(전남대)	jinyeon@gmail.com
종교	임영빈(포스텍)	fcslim@hanmail.net
동양사회/동양사상	정승안(동명대)	sovong@nate.com

### II 분과(일반 세션)

경제/조직	심재만(고려대)	jaemahn.shim@gmail.com
도시/지역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hesal@hanmail.net
범죄/일탈	장안식(고려대)	ansikchang@gmail.com
정보사회학	최향섭(국민대)	jesuishes@kookmin.ac.kr
과학사회학	서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stepi.re.kr
복지/평등	신경아(한림대)	shina@hallym.ac.kr

### III 분과(일반 세션)

젠더	배은경(서울대)	sereneb@snu.ac.kr
가족(청소년)	계봉오(국민대)	bkye@kookmin.ac.kr
교육	신인철(서울대 아시아연구소)	sheldonshin@gmail.com
다문화/소수자	신지원(전남대)	juliashin@jnu.ac.kr
국제이주	송영호(IOM이민정책연구원)	song0505@gmail.com
농촌	김홍주(원광대)	kanddol@wku.ac.kr
인구/노인	김주현(충남대)	haha0929@cnu.ac.kr
사회심리학	김상학(한양대)	sanghag@hanyang.ac.kr
법사회학	홍성수(숙명여대)	sungsooh@gmail.com

IV분과(일반 세션)

정치/사회운동	신진욱(중앙대)	socioshin@gmail.com
산업/노동	박종식(연세대)	foral@hanmail.net
계급/계층	김영미(연세대)	youngmikim@yonsei.ac.kr
환경	김도균(한일장신대)	k642645@hanmail.net
글로벌리제이션 /인권	구정우(성균관대)	jkoo@skku.edu
사회발전/변동	이준구(한양대)	joonlee@hanyang.ac.kr
국제개발협력	임형백(성결대)	emperor10131@hotmail.com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박경철(충남발전연구원)	kcpark@cni.re.kr

V분과(대학원생 및 특별 세션)

대학원생 세션	김근태(고려대)	cozy282@gmail.com
특별세션(BK, SSK 등)	김백영(광운대)	kimby@kw.ac.kr
국제 세션	장덕진(서울대)	dukjin@snu.ac.kr

# 2017년 정기사회학대회 발표신청서

세션명		조직담당자	
-----	--	-------	--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16일(토)
- 장소: 서울대학교
- 발표 신청 마감: 2017년 10월 27일
- 원고 제출 마감(요약문, 논문원문 모두 해당): 11월 24일
- 원고 제출 양식과 분량
  - 1) 발표논문원문-홈페이지 업로드용(PDF파일제작) : 『한국사회학』기고 요령에 따른 A4 10-15매 내외의 분량
  - 2) 대회자료집 수록용: 발표요약문 A4 2매 이하 분량 엄수

※ 요약문을 제출하셔야 발표자료집과 홍보프로그램 자료에 포함되므로, 원고 마감일과 분량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발표를 희망하는 세션의 조직책임자(공고문 3~4쪽)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 대학소속인 경우, 대학 및 학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 ※ 발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표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십시오.

발표제목						
	성함	소속 (대학/학과, 대학 외 기관)	직위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상용 이메일 기재)	PPT 사용여부 (O/X)
발표자						
발표자						

### 3. 2017년 정기사회학대회 숙박 신청 안내

한국사회학회 회원님들께

오는 12월 14일(목)~16일(토) 2박 3일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될 2017년 정기사회학대회 숙박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숙박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하단을 참조하시어 **11월 10일(금)까지** 한국사회학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방법

첨부한 숙박신청서를 작성 후 한국사회학회 이메일 (ksa8747@hanmail.net) 로 접수  
신청마감 : **11월 10일(금)**

◆ 숙박정보 안내

- ▶ 숙박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 전화번호 : 02-880-0311
-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 약도 및 교통안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http://www.hoam.ac.kr>



**교통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출구)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 마을버스[관악-02]는 2~3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버스**  
461, 641, 643, 5413, 5424, 5520, 5524, 5528 이용 낙성대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 (5분거리)

**승용차** 남부순환도로에서 낙성대(이정표:서울대후문) 방면으로 좌.우회전 하여 1.5km 직진하여 좌측 위치 내비게이션 이용시 입력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구주소 : 봉천동) 239-1



▶ 숙박요금 안내

ROOM TYPE	규격	학회 가계약 객실수	요금	비고
레지던스더블 (더블침대 1개-기본2인)	26.5㎡	3	108,900 원	
레지던스트윈 (싱글침대 2개-기본2인)	26.5㎡	4	108,900 원	
온돌트리플 (기본3인)	26.5㎡	7	108,900 원	3인 투숙 가능
디렉스트윈 (싱글침대 2개-기본2인)	26.5㎡	10	133,650 원	

학회에서는 사회학대회 기간 동안 위와 같이 24개의 객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레지던스더블, 레지던스트윈, 디렉스트윈 등은 기본 2인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돌트리플룸은 3인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2017 정기사회학대회 조직위 올림

## 2017년 정기사회학대회 숙박신청서

※ 숙박관련 안내

- ▶ 숙박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 전화번호 : 02-880-0311
- ▶ 숙박요금 안내

ROOM TYPE	규격	학회 가계약 객실수	요금	비고
레지던스더블 (더블침대 1개-기본2인)	26.5㎡	3	108,900 원	
레지던스트윈 (싱글침대 2개-기본2인)	26.5㎡	4	108,900 원	
온돌트리플 (기본3인)	26.5㎡	7	108,900 원	3인 투숙 가능
디렉트윈 (싱글침대 2개-기본2인)	26.5㎡	10	133,650 원	

학회에서는 사회학대회 기간 동안 위와 같이 24개의 객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레지던스더블, 레지던스트윈, 디렉트윈 등은 기본 2인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돌트리플룸은 3인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신청 내용

참석 세션명	성함	소속 (대학/학과, 대학 외 기관)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상용 이메일 기재)	룸타입(명칭)	입실일	퇴실일

신청서를 작성 후 **11월 10일(금) 까지** 학회 사무국 이메일 (ksa8747@hanmail.net) 로 보내주시시오.

### Ⅲ. 한국사회학회 주관 학술심포지엄 안내

<동아시아 발전주의의 역사사회학> 학술회의

- 주최: 한국사회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일시: 2017.11.3.(금) 13:00 - 18:00
- 장소: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301호

#### <동아시아 발전주의의 역사사회학> 학술회의

-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13:00-18:00
- 장소: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301호
- 주최: 한국사회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3:00-13:10	등록 및 친교	
13:10-13:20	개회사	박명규(한국사회학회 회장)
<제1부> 중국과 대만을 통해 본 동아시아 발전주의 사회: 정일준(고려대)		
13:20-14:30	제1발표	대만 발전모델의 이중적 제약조건과 중국 변수
	발표자	김민환(한신대)
	제2발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기원과 중국 자본주의의 역사
	발표자	백승욱(중앙대)
13:20-14:30	제3발표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지역적 동학과 차이
	발표자	박상현(부경대)
14:30-14:40	휴 식	
<제2부> 한국과 일본을 통해 본 동아시아 발전주의 사회: 백승욱(중앙대)		
14:40-15:50	제4발표	1930년대 일본-만주 경제블록과 식민지 개발주의
	발표자	조정우(한경대)
	제5발표	공단도시 형성사를 통해 본 한국 발전주의
	발표자	김백영(광운대)
14:40-15:50	제6발표	한국 수출주의의 형성과 변형
	발표자	박찬동(서울과기대)
15:50-16:00	휴 식	
<제3부> [라운드테이블] 동아시아 발전주의의 역사와 전망 사회: 윤공희(경희대)		
16:00-18:00	폐널 토론	김도균(경기연구원), 지주형(경남대), 최영진(서울대)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다차원적 혁신> 심포지엄

- 주최: 한국사회학회,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협의회
- 후원: 행복나눔재단
- 일시: 2017.11.9.(목) 13:00 - 18: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초대의 글**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학회는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협의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미래의 삶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국사회학회에서 추진해온 공동연구의 성과들이 발표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가치 관련법 제정의 방향과 그 함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지한 패널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혁신의 지혜를 찾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사회학회장 **박명규** |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협의회장 **안규리**

**프로그램** PROGRAM

- |             |            |   |
|-------------|------------|---|
| 13:00-13:30 | 등록         |   |
| 13:30-14:00 | 개회사<br>환영사 | <b>박명규</b> 한국사회학회 회장<br><b>안규리</b>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협의회 회장 |

**[제1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섯 개의 짧은 강연**

- |             |                                 |                                       |
|-------------|---------------------------------|---------------------------------------|
| 14:00-14:20 | 생존에서 공존으로<br>이기적 개인에서 협력적 사회로   | <b>김홍중</b> (서울대)<br><b>최정규</b> (경북대)  |
| 14:20-14:40 | 데이터 경제 시대의 사회혁신<br>사회혁신과 세대의 역할 | <b>강정환</b> (연세대)<br><b>이원재</b> (카이스트) |
| 14:40-15:00 | 사회혁신과 정책거버넌스<br>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 <b>이원재</b> (여시재)<br><b>이재열</b> (서울대)  |

**[제2부]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현안과 방향은?**

- |             |   |  |
|-------------|---|--|
| 15:30-16:00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br>임팩트 금융과 사회적 가치   | <b>사회: 박명규</b> (한국사회학회장)<br><b>우범기</b>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br><b>이중수</b>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
| 16:00-17:30 | <b>패널토론</b><br><b>양동수</b> 법률사무소 와이앤로 변호사<br><b>윤제용</b>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br><b>전호관</b> 서울혁신기획관<br><b>정현천</b> SK 사회공헌위원회 전무<br><b>한상엽</b> sopoong 대표 파트너<br><b>허인정</b> 아르콘(ARCON) 이사장 |  |
| 17:30-17:50 | 질의응답  |  |
| 18:00       | 폐회  |  |

<한국의 감정양식 변동과 특성> 심포지엄

- 주최: 한국사회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 일시: 2017.11.10.(금)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꿈의 사회학> 심포지엄

- 주최: 한국사회학회
- 후원: 삼성생명
- 일시: 2017.11.23.(목)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IV. 한국사회학회 학술세미나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 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성료 보고

한국사회학회는 지난 9월 20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사단법인 온울의 후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작년 9월 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이 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함의, 전망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세션이 기획 되었다. 세미나는 박명규 회장의 인사말과, 조홍식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그리고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진행이 시작되었다.



▲ 인사말을 하는 박명규 학회장(사진 좌)과 축사를 하는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대표변호사(사진 우)

먼저 1세션은 부정청탁금지법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문화와 관습에 어떠한 의미를 미치는지 혹은 미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하였다. 첫 발표는 사회학자인 정수복 작가의 ‘한국인의 문화문법과 사회관계: 정의와 의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의 문화적 문법들과 규칙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와 작업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현아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부정청탁의 문화와 법, 그리고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인들의 법의식과 문화로서의 법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고, 법사회학적으로 본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균관대 거버넌스 연구센터의 박효민 박사는 ‘반부패 규율의 강제성과 자율성: 균형점은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부패의 발생 그리고 법을 통한 부패방지라는 문제를 게임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이 증진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발표를 하고 있는 정수복 작가/사회학자 (사진 좌)와 염유식 부회장(사진 우)

2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임동균 교수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의 특징, 변화, 함의’라는 제목으로, 2016년도 말과 2017년도 여름, 2차에 걸쳐 실시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와 약 1년이 지난 시점 모두 85% 이상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찬성과 공감대를 얻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법의 모호함과 실제 처벌의 희소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청탁금지법 자체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뢰수준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염유식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의 일상사회 관계를 바꾸었는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식조사 중 회식, 선물 교환, 사회적 관계와 같은 행동상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과의 저녁 식사 횟수가 늘었으며 직장동료들과는 점심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윤정 박사는 ‘교육영역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의미: 촌지/선물 관행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80~90년대 촌지의 사회문제화 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영역에서의 선물관행에 대한 김영란법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3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망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에서 본 청탁금지법’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에 대한 통계적/이론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청탁금지법이 중점적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을 가능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는 ‘반부패입법의 향후 과제: 청탁금지법 이후’라는 제목으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의사 표현의 위축, 사회상규와 권익위의 유권해석,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1년간 시행에서 엿보이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사회발전연구소장인 김석호 교수는 ‘현시적 효과와 잠재적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청탁금지법이 1년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살피고,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자리잡는데 장애가 되는 측면을 조명하며, 한국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석호 교수(사진 좌)와 장덕진 교수(사진 우)



▲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 향후 발전 방향 모색 등에 대한 종합토론

마지막 4부에서는 앞서 3개 세션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실시하였다. 박명규 사회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청탁금지법을 기안하고 시행하는데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기현 사무관,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김덕희 사무관, 행정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 및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던 박준 박사, 본 세미나를 후원한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그리고 국민 의식조사를 수행한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임동균 교수가 청탁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 향후 발전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아울러 참여한 청중으로부터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세미나는 신문과 방송 등 많은 언론들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주요 언론 매체에 세미나의 핵심 내용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임동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V. 유관 사회학회 학술세미나 보고

한국여성학회 2017여름캠프 <페미니즘의 미래: 폭력과 불평등을 넘어서>

- 주최: 서울특별시
- 일시: 2017년 8월 16일(수)~17일(목)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한국문화사회학회 8월 콜로키움

- 일시: 2017년 8월 25일
-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비판사회학회 2017년 하계워크숍 및 제 14회 전국 사회학과 대학원생 학술대회

- 주제: 한국사회와 지식인의 길
- 일시: 2017년 8월 28일(월)
- 장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 주최 및 주관: 비판사회학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업단

한국여성학회 2017년 제2차 학술포럼 <인문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남성성>

-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 장소: 계명대학교

비판사회학회 2017비판사회학대회 <역사적 전환과 체제 변동: 2017년, 희망의 변곡점>

-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 장소: 고려대학교
- 주최: 비판사회학회
- 주관: 비판사회학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VI. 미국사회학대회 참가기

사회학에서 가장 큰 학술대회인 미국사회학 대회가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사회학 대회이지만, 십여년에 한번은 캐나다에 있는 도시에서 개최되는 듯하다. 기록을 보니, 1997년엔 토론토에서 개최되었고, 2006년은 올해와 같은 몬트리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만 2006년과 다른 점은, 미국 이외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때에는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최근에 새로 생겼다는 점이였다. 신청절차는 간단하고, 허가도 온라인으로 빠르면 몇 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절차인 만큼 비미국인들에게 많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몇몇 “위험국가”에 가한 여행 제한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북미 밖 일부 학자들의 학술대회 참여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올해 미국사회학 대회의 주제는 <지구적 문화,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포함>이였다. 이는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학술적 고민을 일상의 영역으로 넓혀 다뤄보려는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회가 열린 컨벤션 센터가 워낙 큰 공간이기도 했고, 주변에 불만한 여행지와 식당들이 많은 탓에, 여느 해와는 달리 대회장이 크게 붐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회가 열린 4일동안 다양한 주제로 무려 600여개의 섹션에서 3000여개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미국사회학회와는 별도로, 재미한인사회학 대회가 미국사회학회 공식 대회 전날인 11일에 개최되었다. 재미한인사회학 대회는,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사회학자들로 이루어진 단체(Association of Korean Sociologists in America)가 주관하여 2012년부터 개최해온 학술대회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먼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학회 회장인 박현준 교수(2016-2017)가 학회 운영진과 활동 내역을 소개하였고, 고학력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오은실(하버드대)에게 대학원생 논문상 시상이 있었다. 이후 미국 전역과 캐나다는 물론, 한국에서 온 50~6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밤늦게 까지 이어진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면서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재미한인사회학 대회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논문 출판에 관한 패널토론으로서, 우혜영 교수(포틀랜드 주립대)의 사회로, 김민정 교수(샌디에고 주립대), 임채운 교수(매디슨 소재 위스콘신대), 그리고 박현준 교수(펜실베니아대)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연구논문의 생산과 출판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여섯 개의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된 토론이었다. 이는 세부 분야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격의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서, 각각의 테이블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과 관심분야의 신진 학자 및 대학원생들을 미리 배치한 프로그램 위원회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내 한국연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폴 장 교수(하버드대)와 최재성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폴 장 교수는 미국 학교와 연구기관 내 한국학의 위상과 변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회학자들의 학문적 기여에 대해 강조하였고, 최재성 교수는 사회학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인 빅데이터의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김영미 교수(연세대)가 올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사회학회장 박명규 교수(서울대)를 대신하여 한국사회학회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 해 동안 이어온 재미한인사회학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올해 재미한인사회학 대회에서 주목할 새로운 사업은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대회전 서베이를 통해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의사와 연구 관심분야 정보를 수집하였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분야별로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매칭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재미한인사회학 대회가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한인사회학자들의 폭넓은 교류의 장으로 여겨져 온 만큼, 새롭게 기획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진 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재미한인사회학대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는 한인사회학자들

재미한인사회학회는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groups/ksociology/>)와 이메일 리스트서브를 통해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고, 매년 여름 미국사회학회 전 날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폭넓은 연구 교류와 사회학 관련 직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미한인사회학 대회는 한국 사회와 한국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학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학회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는 (아주 적은 비용의 참가비로) 여러 다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과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꼭 추천하고 싶다.

우혜영 (포틀랜드 주립대)

## VII. 출판 활동

### I

## <한국사회학> 2017년 제51집 3호 발간

<한국사회학> 2017년 제51집 3호에는 연구논문 5편 그리고 서평 1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논문>

- 부정자본론: 사회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 김홍중
- 한국의 사회학 연구영역에서의 근거이론의 활용 방법과 전개, 그리고 향후 방향의 모색: 『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 김은정
- 문화코드의 조정과 우위: 한국 시민사회 신용정보논쟁을 중심으로 / 이희정
- 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30~55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 이선정, 김정석
- 반다문화 논리의 확장과 공유: 19대 국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분석 / 김지영

### <서평>

- 맑스와 뒤르케임의 ‘실재론’적 귀환을 환영한다 / 채오병

## VIII. 회원 동정

### I 부고

-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 빙부상 : 2017년 9월 2일 별세
- 계명대 사회학과 이영찬 교수(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원장, 전 동양사회사상학회 회장) 부친상 : 2017년 9월 3일 별세
-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 빙모상 : 2017년 10월 4일 별세

### II 신입회원 (가나다순 - 총 5명)

- 박찬중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 성수빈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석사과정)
- 신난딩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객원연구원
- 윤지민 -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박사과정)
-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 III 학회 후원

- 학회 공동연구에 참여하시는 강정한, 구도완, 김경일, 김병로, 김병조, 김석호, 김홍중, 김혜경, 박명규, 서호철, 신경아, 이재열, 전상인, 조한범, 진승권, 최종렬 (가나다순) 회원께서 개별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기여금을 학회에 기탁하셨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동창회장이신 손창조 대표께서 3년째 500만원의 기여금을 보내주셨다.
- 학회 추천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로 선정되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께서 300만원을 기부하셨다.

## IV 2019년도 사회학회장 선거

- 2019년도 사회학회장 후보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 1인이 추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염유식 부회장) 주관 하에 3년 이내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신 정회원과 명예회원께서는 우편투표 또는 정기사회학대회 정기총회 전까지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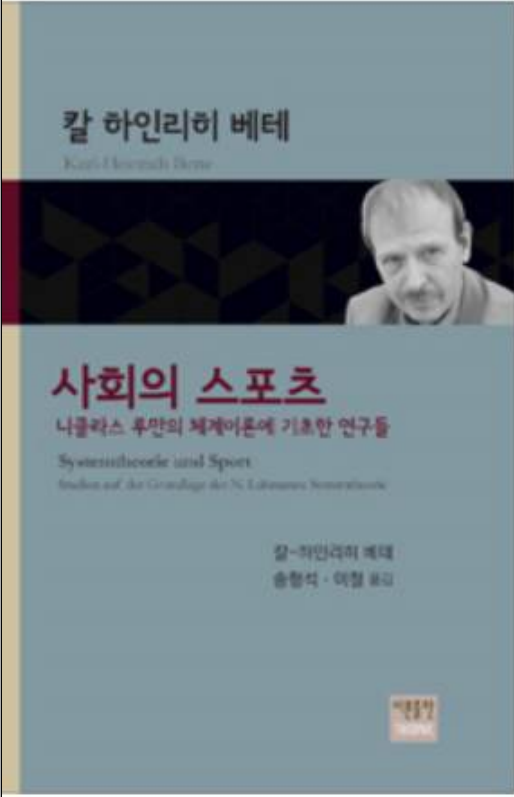
## V [한국사회학]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 [한국사회학]이 2017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편집위원회(위원장 이명진 고려대 교수)는 현재 S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VI

## 회원 출판 소식


- 칼-하인리히 베테, 송형석, 이철(동양대 경찰행정학과) 옮김  
《사회의 스포츠 -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에 기초한 연구들》, 이론출판,  
2016년 8월(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I. 이론적 배경</p> <p>1장 새로운 사회학적 체계이론</p> <p>2장 체계이론적 추상화의 기능과 결과들</p> <p>3장 경험과 이론 - 체계이론적 고찰</p> <p>II. 스포츠와 신체</p> <p>4장 승배대상 신체</p> <p>5장 스포츠와 개인화</p> <p>6장 아스팔트 문화: 도시공간의 스포츠화와 축제화에 대하여</p> <p>7장 고도 성과 스포츠에서 도핑: 일탈의 사회학적 연구</p> <p>III. 관찰과 자문</p> <p>8장 관찰자를 관찰함: 체육학의 새로운 인식론을 추구하며</p> <p>9장 학문의 스포츠 자문: 가능성, 한계, 전제</p>
--	--

독일의 스포츠과학자 칼-하인리히 베테가 1980년대부터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사회의 스포츠 현상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난해한 체계이론이 스포츠와 인간의 신체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체계이론은 베테의 가치영역들이 사회의 기능체계들로 분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조건에서 Individuum(개인)을 Dividuum(분인(分人))으로 더욱 쪼개어서 분석한다. 이 분석 프레임은 “개인화”에 대한 체계이론적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이 이론은 스포츠 일탈을 보기로 하여, 일탈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관찰자가 관찰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을 스포츠 자문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다.

○ 이항우(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독점 지대, 4차 산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한울아카데미, 2017년 8월.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제1장 서론</p> <p>제2장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p> <p>제3장 동료 생산(peer production)과 시장</p> <p>제4장 위키피디아(Wikipedia)와 비시장 동료생산</p> <p>제5장 구글의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p> <p>제6장 정동 경제의 가치 논리와 빅 데이터 폴리네이션</p> <p>제7장 사물 인터넷, 개인 데이터 소유권, 그리고 화폐 보상</p> <p>제8장 피투피(P2P) 네트워킹과 ‘중간자(Middleman)’ 없는 사회관계</p> <p>제9장 자유/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p> <p>제10장 결론: 4차 산업 혁명과 정동 자본주의</p>
--	--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블록체인 등의 이른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논의는 모두 사실상 지구적 수준에서 인구의 생체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와 분석과 활용이 스스로의 재생산에 관건적 요소가 되는 정동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통재적 속성이 두드러지는 사회관계, 정보, 지식, 데이터, 정동 등과 같은 비물질재의 생산이 점점 더 잉여가치 창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생산의 외부 요소가 되고 있다. 우선, 지적 재산권 전략에 집중하는 대신 대부분의 물질재 생산은 아웃소싱하는 오늘날의 자본에게 노동을 직접 조직하고 규율하는 생산의 내적 기능은 이미 이전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부와 가치가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자발적인 대규모 협력에 의해 창출되는 집단 지성의 시대에 자본의 경영 기능도 사실상 생산의 외부 요소가 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생산의 외부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자본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토대로 여전히 ‘사회-공장’의 생산물을 사적으로 전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윤은 점점 더 지대가 되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의 지배적 수익 형태가 이윤에서 지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대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에 대한 수탈이라면, 현대의 지대는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광범위한 자유노동에 대한 수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동 자본주의가 토지와 지식에 이은 정동이라는 새로운 공통재의 엔클로저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동을 생산하는 자유노동에 대한 물질적 화폐적 보상은 그것의 사회적 공통적 성격에 걸맞은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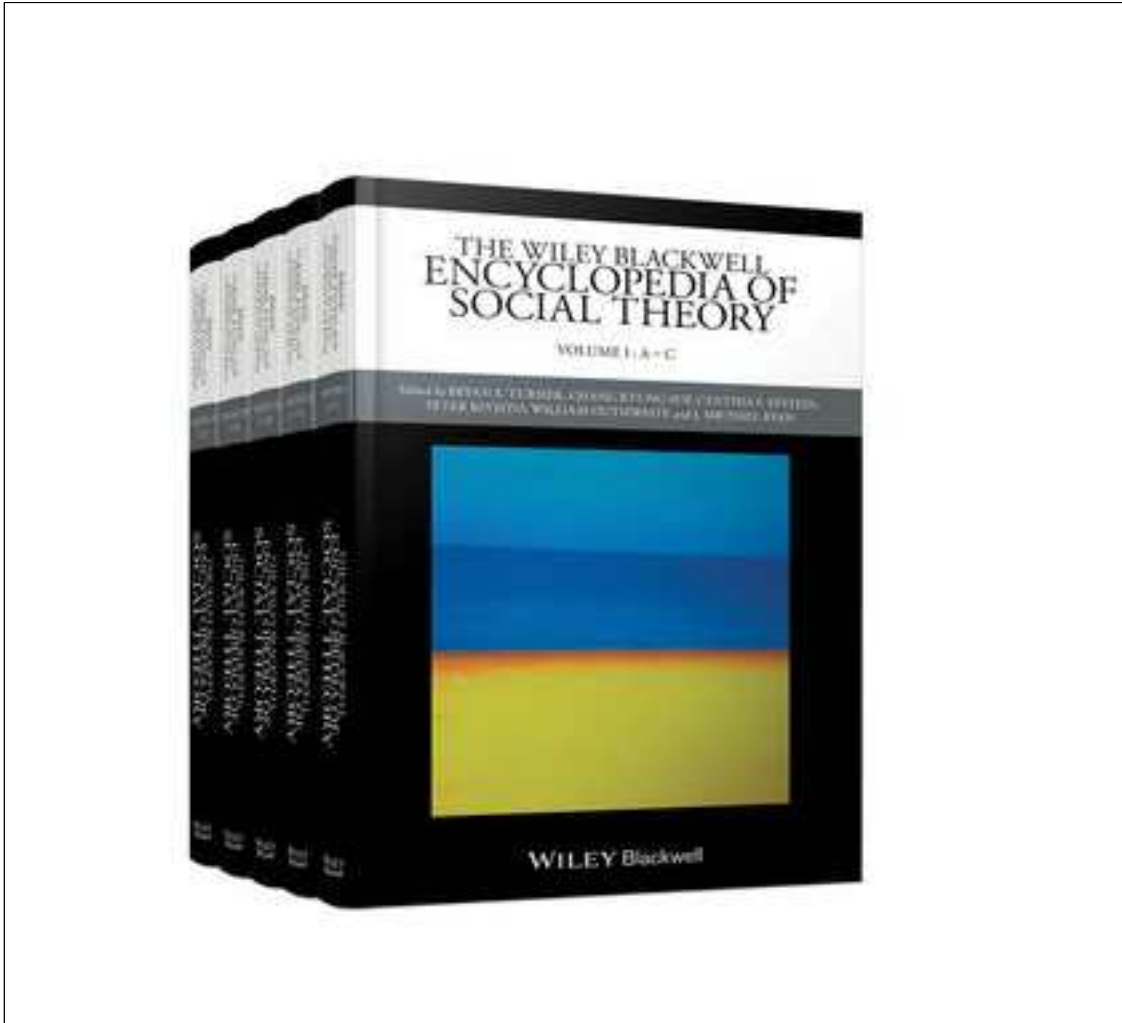
- 니콜라스 루만, 안드레 키질링 편집, 이철(동양대 경찰행정학과) 옮김  
《사랑: 연습》, 이론출판, 2017년 9월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역자서문 열정으로서의 사랑(1969) 편집자 주</p>
--	--

이 책은 “사랑”이라는 근대사회의 독특한 현상을 사회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남녀 사이에 모든 체험을 공감하고 공유해야만 유지되는 근대의 소통체계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에서,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제도화되었는가? 친밀체계는 소통이론과 매체 이론적으로 근대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며,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는가? 친밀체계는 인정을 갈망하는 인간 보편의 욕구들이 타자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입증받으려는 유형으로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심리적 체계들은 자기 속에 갇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소통에 참여하는 심리적 체계들은 소통을 통해 서로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의미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관적 의미영역만을 가꾸어나가는 것이다. 친밀체계의 성공과 좌초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을 ‘차갑게’ 분석하여 친밀체계의 근본 구조를 잘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소통을 잘 연습하여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좌초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근대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된 사랑, 성, 결혼의 달라진 관계를 분석적으로 보여주며, 그 위기와 해법을 모색한다.

-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Bryan S. Turner (전 캠브리지대 석좌교수), Cynthia F. Epstein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전미국사회학회장) 공동편저.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2017년 11월 출간예정.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 교수는 Bryan S. Turner (전 캠브리지대 석좌교수), Cynthia F. Epstein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전 미국사회학회장) 등과 공동으로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전 5권, 2864페이지)를 편집하여 2017년 11월에 출판한다. 전 5권 850여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역사상 최대 사회이론 간행물로서 고전, 현대, 최신 사회현상 및 이론을 포괄하며, 장경섭 교수는 근대성/식민성/발전문제 섹션과 아시아 사회이론 섹션의 편집책임을 맡았다. 한국과 관련해, 민중, 재벌, 유교근대성, 압축근대성, 분단체제, 동도서기 등의 항목이 게재되었다.

## IX. 언론 보도

I

### 한국사회학회 학술세미나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 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중앙일보 외 44건

중앙일보

인쇄하기

## 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효과"... "더치페이 늘었다" 44%

[중앙일보] 입력 2017.09.20 21:3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 대상자는 1566명이었고, 이 중 1202명을 대상으로 2차 추적조사가 이뤄졌다.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45.5%가 '약간 있었다', 38.2%가 '어느 정도 컸다', 5.5%가 '매우 컸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없었다'는 9.9%, '전혀 없었다'는 0.6%에 불과했다. 응답자 52.9%는 실제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55.4%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료 : 중앙일보

(<http://http://news.joins.com/article/21956126#none>)

## X.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 I 학술행사 보고

2017년 성균사회학포럼<한국종합사회조사 사업 회고와 기대>

- 주최: 성균관대학교 BK21 PLUS 「사회통합 기반구축 조사연구 전문가 양상사업팀」
- 일시: 2017.9.8.(금) 16:30 - 18: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제7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최: 대한범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 후원: 여성가족부
- 일시: 9월 14(목)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2017년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최: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 후원: 교육부
- 일시: 9월 15(금)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제 3회 KOSSDA 데이터페어

- 주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일시: 2017.9.22.(금) 13:30 - 18:3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학회
- 일시: 2017.9.22.(금) 11:30 - 17: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디지털성범죄> 심포지엄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의기억재단, 심대여성인권센터, 희망의 씨앗, Colabo
- 일시: 2017.9.23.(토) 13:45 - 18:00
- 장소: 중앙대학교 310관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생존주의적 근대성과 문제 신학: 조용기 목사에 대한 케이스 연구> 사회학 콜로키움

- 일시: 2017.9.28.(화) 19:00
- 장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Progressive Nationalism in an Ag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Brexit Paradox>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 일시: 2017.9.28.(목) 12:00 - 14:00
- 장소: 중앙대학교 102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주최 제임슨 퍼거슨 교수 초청강연 <Not Working: 일자리 없는 도시가 생산과 분배에 관한 통념에 던지는 질문들>

- 일시: 2017.10.18.(수) 15:30-16:00
- 장소: 연세대학교 장기원국제회의실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젠더화된 디아스포라와 학문의 자유 Gendered Diaspora and Academic Freedom>

- 주최: 중앙대 사회학과, 중앙대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중앙사회학연구소
-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
- 장소: 중앙대학교 102관

2017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9:50 - 17:4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II

## 학술행사 안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 주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젠더와 국제이주” 연구팀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일시: 2017.11.1.(수) 13:00 - 18:00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포스트식민 기억과 문화적 재현> 심포지엄

- 주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 주최: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인권분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 시간: 2017.11.3.(금) 10:00 - 18:00
- 장소: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310동) 601호

2017년 한국해양사회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 주최: 한국해양사회학회
- 일시: 2017.11.17.(금) - 18(토)
- 장소: 강원도 양양

ISA(국제사회학회) RC28(사회계층과 사회이동 분과) 2018년도 국제 학술대회

- 일시: 2018.5.25.(금) - 27(일)
- 장소: 연세대학교
- 논문 공모기간 : 2017. 10. 15.(일) - 12.1(금)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사)한국사회학회 뉴스레터는 매 1월, 4월, 7월, 10월의 15일자로 발행하며 원고 마감일은 전월 말일까지입니다.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사)한국사회학회 사무국(Tel: 02-722-8747, Fax: 02-722-8746, E-mail: [ksa8747@hanmail.net](mailto:ksa8747@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